

강화군, 숙원사업 해누리공원 준공

“국가유공자 고향인 강화에 영면... 보훈 예우에 최선”

유천호 강화군수 국가유공자 분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민선7기 역점사업으로 선정 시행
국가유공자 2천여 기, 일반군민 2천3백여 기 자연장지 조성



해누리공원 준공 (사진출처 강화군)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29일 국가유공자 예우와 친환경 선진 장묘문화 도입을 위해 추진한 ‘해누리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준공식에는 유천호 군수, 신득상 군의회위원장 및 의원, 유관 기관단체장과 보훈단체장 및 회원, 주민 등이 400여 명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하였다.

해누리공원은 무분별하게 분묘가 설치되어 미관을 해치고 있던 기존의 황청리 공설묘지를 재정비하여 경관을 개선시키고 국가유공자 분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민선7기 역점사업으로 선정 시행하였다. 공공시설물 중 역대 최대규모면적인 해누리공원은 6만6천여㎡ 부지에 국비 28억과 군비 101억 등 총사업비 129억원을 들여 국가유공자 묘역 2,000여기와 일반군민 묘역 2,300기 등 총 4,300여기를 친환경 자연장지로 조성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업적을 기리고 호국의 정신을 느낄 수 있도록 추모공간이 호국마당을 설치하고 유희부지에는 사계절 정원과 파고라 등 쉼터를 설치하고 서해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해 휴식과 힐링, 나들이 명소로 거듭나도록 만들었다. 한편 군은 해누리공원 개장에 맞춰 국가유공자 묘역 사용료와 관리비를 전액 면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강화군 해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지난 17일 마련했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해누리공원 준공으로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국가유공자가 타 지역 현충시설이 아닌 고향인 강화에 모실 수 있게 돼 군수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국가유공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의 공간으로 자리 매김될 수 있도록 해누리공원을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 최벽하 기자

풍요로운 강화! 어서 오시게!

강화군, 교동면 고구저수지에 야간경관 조명 설치 일상 속 안전한 힐링! 야간 휴식 공간 제공



강화군이 주민들의 여가문화 선용과 안전한 야간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교동면 고구저수지에 경관조명을 설치한다. 군은 2022년도 ‘인천시 군·구 경관형성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해 고구저수지 데크길에 경관 LED 조명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어둡고 캄캄한 저수지 데크길에 야간의 생동감을 불어넣어 주민의 안전한

휴식공간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인근 대룡시장, 화개정원, 교동향교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구저수지는 교동대교를 넘어 대룡시장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8월이면 88.5ha에 이르는 넓은 저수지에 연꽃이 가득하게 피어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이**

- 최벽하 기자

Photo NEWS 코로나19로 지친 군민에 위로 및 새해 희망 선사



교동면 경관 조명



문화관광과 경관조명

올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아쉬움과 후회는 접어두고 다가오는 2022년은 설렘과 희망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강화군, 2022년 본예산 6,146억 원 편성,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유천호 군수 “지역경제 활력지원, 단계적 일상회복 선도할 것”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022년도 본예산안을 6,146억 원 규모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1년도 본예산 5,638억 원보다 508억 원 증가한 규모다. 세입은 지방세 512억 원, 세외수입 259억 원, 지방교부세 2,619억 원, 조정교부금 96억 원, 국고보조금 1,758억 원, 시비보조금 792억 원 등의 재원으로 편성되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대비 459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며 재정자주도가 지난해보다 2.3% 증가한 56.7%로 나타났다. 특히, 국고보조금은 발로 뛰는 행정으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지난해 대비 106억 원을 더 확보했다. 하지만, 시비보조금은 지난해보다 3억 원 감소한 792억 원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2022년 본예산은 재정운영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민선7기 주요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와 지역경제의 역동성 회복, 사회안전망 확충 및 주민 삶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주요 편성 내용은 군민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주민 삶의 질 제고에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사업 662억 원 △장애인연금·장애인활동지원 등 장애인 복지사업 177억 원 △아동·영유아 지원사업 193억 원 등을 편성했으며,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에 △전통시장, 소

상공인 일상방역 및 시설개선 지원 33억 원 △공공근로, 창업·일자리 지원 12억 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주민 생활의 안전·편의 증진을 위해 △국가 및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120억 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정비사업 44억 원 △군도, 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297억 원 △연안 정비사업 44억 원 △공영주차장 조성 23억 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및 재활용 전용 봉투지원 51억 원 등을 반영했다.

어르신 경제 활동 및 여가문화 지원을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지원 127억 원 △경로당 운영 및 기능보강 30억 원을 반영하고, 풍요로운 농어촌 조성 지원을 위해서 △미래농업센터 기반시설 구축 17억 원 △강화첨단농업 육성 지원 15억 원 △강화고려인삼 생산기반시설 조성 및 농산물 표준규격출하 포장재 지원 18억 원 △어촌 뉴딜사업 추진 128억 5천만 원 등을 편성되었다.

유천호 군수는 “코로나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선도하겠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700여 공직자와 함께 민선7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 권주형 기자

강화군 행복센터 건립사업 ‘순풍’ 올해 12월 준공, 내년 상반기 개관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생애주기별 모든 계층이 여가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강화군행복센터가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현재 공정을 87%를 달성하며 마무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근린생활 복합공간인 ‘강화군행복센터’(이하 ‘행복센터’)는 사업비 199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8,968㎡의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로 지난해 11월 착공했다.

유천호 군수는 공사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공정을 확인하며 안전사고 및 사업 완공에 주력하고 있다. 행복센터 △지상 1층에는 농산물판매장, 마을식당, 카페 △지상 2층에는 수도권 최고의 어린이 실내놀이시설 △지상 3층에는 도시재생센터 및 마을주택관리소, 체력단련실, 효체험관 △지상4~5층에는 장난감대여소, 재봉실, 요가실, 제과제빵실, 조리실 △지상 6층에는 탁구장, 다목적홀, 장병휴게실 등이 조성된다. △지하1층과 2층에는 54면의 주차장이 들어선다. 또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인접 부지에는 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해 공영주차장 67면을 별도로 조성하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행복센터가 준공이 되면 가족단위 모든 연령대의 군민들이 함께 힐링하며 즐길 수 있는 소통의 공간,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류의 공간이 될 것”이라며 “모든 군민이 문화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권주형 기자

Photo NEWS 현/장/출/동



강화군,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국가유공자 명예선양복리증진에 최선
유천호 군수 “국가유공자 고향인 강화에 영면, 배우자의 보훈예우 당연”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내년 1월부터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 가족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을 위해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그동안 참전유공자의 유족들은 전몰군경, 상이군경, 무공수훈 등 다른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보훈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본인이 사망하면 명예수당이 중단됐다. 이에 군은 지난 17일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복지수당 신설을 담은 ‘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내년부터 매월 15만원씩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으로 관내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이다. 20년 이상 관내에 장기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라도 지급 대상자에 포함된다.

한편, 군은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민선7기들어 연차적으로 명예수당을 인상해 전국 최고 수준인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보훈대상자 예우와 선진 장묘문화 도입을 위해 군비 10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28억 원을 투입한 ‘해누리공원’이 오는 29일 준공한다. 국가유공자의 묘역 사용료와 관리비는 전액 면제된다.

유천호 군수는 “해누리공원으로 지역의 국가유공자가 고향인 강화에서 영면할 수 있게 돼 군수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이번 복지수당 지원으로 영면하신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계를 돕고 명예를 드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지킨 국가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화군 전역 한강물 농업용수 공급체계 구축 완료

유천호 군수 “발농사에도 물 걱정 없는 한강물 24시간 공급체계 구축에 최선”
‘강화지구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사업’ 준공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18일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지구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사업’ 준공과 함께 관내 전역에 한강물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체계적인 용수공급 시스템을 구축되었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유천호 군수, 배준영 국회의원, 이승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이수근 강화웅진지사장, 신득상 강화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등 기관·단체장과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해 한강물 공급사업 준공을 축하했다.

‘강화지구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사업비 718억 원을 투입해 저류지 2개소, 양수장 17개소, 송수관로 78km 등을 구축해 한강물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으로 한강물 하루 공급량이 5만 6천 톤으로 대폭 늘어나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영농에 필요한 관개용수 공급체계가 구축되었다.

사업비 340억 원이 투입되는 ‘한강물 강화전용 송수관로 사업’이 농림부 농업용수 이용체계 개편사업의 기본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삼산면 매음리 일대에는 사업비 337억 원이 투입되는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과 관개개선사업이 기본계획을 거쳐 추진 중에 있다.

유천호 군수는 “강화 전 지역에 한강물 농업용수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항구적으로 물 부족을 해결하겠다”며 “농업인들이 발농사에도 물 걱정 없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강물 24시간 공급체계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최벽하 기자



강화읍, 아름다운 강화읍 만들기 추진 도심 속 방치된 공유지 활용 녹지대 조성

강화군 강화읍(읍장 주우중)은 지난 16일 도심 속 공유지를 활용해 녹지대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강화읍은 올 초 방치된 공유지에 녹지대 조성 계획을 세워, 3회 추경예산으로 이번 사업을 진행했다.

화단 중앙에 고풍스런 소나무로 포인트를 주고 월동 가능한 다년생 위주의 나무와 초화를 심어 주민들에게 사시사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주우중 읍장은 “도심 속 휴식공간 제공으로 주민복지와 환경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권주형 기자



강화읍 도심속 녹지 조성

강화군, 강화섬쌀 지역 특화 벼 품종 선정 ‘눈앞’

수요자 참여형 벼 품종개발, 소비자 밥맛 평가회 개최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17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지역특화 벼 품종 육성을 위한 소비자 밥맛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는 국립식량과학원, 강화군, 소비자 밥맛 평가단, 지역농협 및 미곡종합처리장(RPC)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강화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선정하기 위해 실시됐다.

군은 ‘고시히카리’, ‘추청’ 등의 외래품종을 대체하고, 농가와 소비자가 원하는 최고품질의 고부가가치 쌀을 생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농촌진흥청(국립식량과학원), 농협 및 미곡종합처리장(RPC) 등과 함께 업무협력으로 품종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올해에는 강화남부·북부지역 8,000㎡ 규모 시험포에서 조생종 12 계통, 중만생종 7 계통을 재배해 생육과정, 병해충 저항성 등을 평가해왔다. 최종적으로 ‘고시히카리’를 대체할 조생종 3 계통과 ‘추청’을 대체할 중만생종 4 계통을 선발해 금일 밥맛 평가를 실시했다.

한편, 군은 ‘강화섬쌀’ 경쟁력 향상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고품질 쌀 육성단지를 조성(200ha)해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에게 ▲소식 재배 기술보급, ▲인공상토 공급, ▲상자처리제 및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공동방제단 등을 지원해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돕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최고품질의 차별화된 벼 품종을 개발해 강화섬쌀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이라며 “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강화섬쌀을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권주형 기자



벼품종 개발사업 식미 검정

구제역 및 고병원성AI 차단방역 총력 거점소독시설 운영, 드론 방역 등 고삐 ‘바짝’



구제역, 축산과 - 드론방역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관내 유입 차단을 위해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을 시행한다.

군은 최근 강원도 인제, 홍천 등의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고, 전국 야생조류 및 충북·전남지역 가금사육농장 가금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되는 등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특별방역대책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농가단위 집중소독을 통한 방역강화에 중점을 두고 자동화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드론을 활용한 방역약품 살포 등의 선제적인 방역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양돈농가와 가금사육농가에 소독용 생석회 110톤, 방역약품 1톤을 배부해 자발적인 축사소독을 독려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상시 예찰을 강화한다. 아울러, 인천강화옹진축협과 공동방제단을 운영해 소규모 농가에 소독을 지원하고, 철새 출현지, 하천 및 주변 도로를 매일 소독하고 빈틈없이 방역을 실시해 방역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의심축 발견 시 신속하게 가축방역기관(강화군청 축산과 ☎032-930-4253)에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안전한 겨울나기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 철저한 사전대비로 군민불편 최소화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군민 모두가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겨울철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우선 오는 11월 2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재난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했다.

경찰서, 소방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소관 부서 및 각 읍·면에서는 상황별로 비상근무를 실시해 위험요인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상황 발생 시에는 재난문자, 마을방송 등을 통해 상황별 행동요령을 홍보하기로 했으며, 폭설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설장비 등의 사전점검을 마쳤으며, 제설 취약지역에는 염화칼슘·모래·염수 등 제설자재를 확보했다. 한파에 대비해 상수도 동파 긴급복구반을 운영하고, 식수 부족 시 미추홀참물 등의 생수공급과 생활용수 시에는 살수차를 동원해 물 공급을 할 계획이다.

유천호 군수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겨울철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폭설과 한파에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군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 - 권주형 기자



안전총괄과_원격 제설작업 시스템

강화군, 2021년 강화군수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단계적 일상회복에 발맞춰 생활체육 활기
백신접종확인, 무관중개최, 7개 종목 축소 등 방역 강화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2021년도 군수배 종목별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군은 강화군체육회(회장 권영택)이 주최하고 각 종목별 경기협회가 주관하는 '군수배 종목별 체육대회'에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족구, 볼링, 자전거, 궁도 등 7개 종목의 선수들이 참여해 열띤 경기를 펼친다고 밝혔다.

대회는 지난 21일 축구를 시작으로 27일 테니스·게이트볼, 28일 족구가 치러지고, 볼링·자전거·궁도 3개 종목은 오는 12월 협회별로 일정을 정해 개최된다.

군체육회는 방역을 강화해 무관중 경기를 원칙으로 백신접종 완료자만 경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기 전·후로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경기를 치를 방침이다.

유천호 군수는 "2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대회가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전 군민이 화합하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며 "체계적인 사전 준비와 철저한 방역으로 성공적인 대회로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권주형 기자



강화군 생활민원 기동반, 주거안정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모두가 풍요로운 강화군! 따뜻한 복지 실현!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생활민원기동반 운영으로 군민 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군은 지난 10월 '강화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민원기동반 시범 운영에 들어가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과 생활안전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다. 생활민원처리반은 전등, 수도꼭지, 콘센트, 문고리 수리 등 생활 속 작은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이웃의 주거환경을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

군은 올해말까지 생활민원처리반을 시범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민원을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생활민원 기동반 서비스를 받은 A 씨는 "전등이 오래되고 낡아 깜박거리고 위험했는데 군청 생활민원처리반에서 직접 와 친절히 새것으로 바꿔주고 말벗도 해줘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천호 군수는 "어르신들이 직접 해결할 수 없는 일상적인 불편을 덜어드리고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강화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규모 생활불편을 겪는 사회취약계층 가구의 경우 해당 읍·면에 신청이 가능하다. [권주형 기자

강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에 나선다

빈틈없는 어르신 돌봄 체계 구축 / 유천호 군수 "어르신
돌봄서비스 질 향상으로 복지 강화 기대"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으로 어르신 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장기요양요원은 노인요양시설, 재가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가족을 대신해 헌신과 희생으로 어르신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유천호 군수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필수 요원으로 사회적 재발견됐다"며 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이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이 이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한 바 있다.

군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 관계자와 간담회 등을 통해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강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10월에 강화군의회에서 의결됐다.

2022년도 예산안에 8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마련해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 사업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조사·연구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 등의 사업을 펼쳐 종사자의 권리 보호와 복지를 증진할 방침이다.

군은 단군콜센터, 노인맞춤돌봄,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빈틈없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이 어르신에 대한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시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주형 기자

Photo NEWS

내고장을 지키고 가꾸는 사람들



강화읍_다공맘 김치나눔



행정과_2021국가대표회
중선발(배준서 1위)



자위소방대 소방훈련



공인중개사협회 김장김치 나눔행사



길상면_사랑의벤치만들기



교동면_나들길 정비

육·해·공 교통중심지 인천,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다!

- 12월 7일, 인천발 KTX 비전선포식 개최 -
- 2025 개통 시, 부산·목포 두 시간대 주파... 전국 만나질 생활권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발 KTX 비전선포식을 12월 7일 오전 10:30분 수인선 송도역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발 KTX를 시작으로, 인천국제공항까지 철도를 연결해 대한민국을 세계로 잇는 국제도시 인천으로 비상하겠다는 비전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인천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도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교통요충지였다. 최초의 철도(경인선)와 고속도로가 인천에서 시작됐고 세계를 향하는 관문, 국제공항도 인천에 위치해 있지만 아직까지 KTX가 연결되지 않은 유일한 광역시다. 이에 2016년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인천발 KTX를 반영했으며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착공했다.

인천발 KTX는 기존 수인선을 활용해 송도역을 출발, 안산 초지역과 화성 어천역을 거쳐 경부고속철도에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4,238억 원이 투입된다. 인천발 KTX가 2025년에 개통되면 부산까지 2시간 29분, 목포까지는 2시간 10분이 소요될 예정으로 서울역이나 광명역을 이용하는 것보다 약 1시간 30분을 단축할 수 있다. 아울러, 인천에서 강릉을 잇는 경강선의 월교~판교 구간도 지난 10월에 착공됐으며, 2027년이면 송도~강릉 간 KTX이음이 운행돼 1시간 50분이면 강릉까지 이동할 수 있다. 전국 만나질 생활권 구축이 가능해지면서 인천의 교통여건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박남춘 시장은 “인천은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그리고 곧 개통할 인천발 KTX 등 뛰어난 접근성과 교통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세계로 잇는 명실상부한 세계 국제도시로 성장할 것”이라며 인천발 KTX의 비전을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백하 기자

인천시, 아시아 백신 허브로의 도약

‘구조기반 감염병 신약·백신 개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 공청회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1월 24일 ‘구조기반 감염병 신약·백신개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2021년도 상향식 다부처공동기획연구 온·오프라인 공청회를 국회의원, 2개 시도와 공동주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KISTEP 다부처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 산·학·연 전문가의 견수렴과 다부처공동사업 수요조사를 위한 정보제공 및 공동기획연구 충실성 확보를 위해 정일영 국회의원, 김정재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 인천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가 공동주최했고 ‘구조기반 감염병 신약/백신개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은 다부처 사업으로 인공지능 기반 컴퓨터 신약설계 및 최첨단 단백질 구조 결정 장비인 Cryo-EM(초저온 전자 현미경) 기술을 결합해 국내 단백질 및 합성 신약개발 중소, 벤처 회사의 신약개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계획한 사업이다.

초기 기획은 과기정통부의 용역으로 포항공대에서 수행해 기획한 결과 포항공대를 중심으로 경북의 여러 기관이 참여하고 또한 본사업의 파트너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송도)를 중심으로 분자설계연구소, (주)바오밥에이바이오 및 주변의 연구 인력들이 참여하며 인천시가 지원을 하는 구도이다. 초저온 전자 현미경과 컴퓨터 신약 설계는 이번 코로나 19 긴급상황을 맞아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절대적으로 기여했다. 현재 초저온 전자 현미경 및 신약 설계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포항공대와 연세대 송도 캠퍼스가 대표적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김준성 시 미래산업과장은 “인천은 지난 7월 K-바이오 랩 허브 구축사업을 유치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치료제 및 신약개발 창업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며, 국내 신약개발 벤처들의 기술력 향상은 물론 신약후보 물질 창출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라며, “K-바이오 랩허브와 함께 시너지 효과 창출을 통해 인천이 아시아 백신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인천둘레길’에는 자연과 근대 역사문화가 있다.

총 16코스, 각 군구별 1개 이상의 코스 조성
스탬프북 들고 완주 인증한 시민에게는 소정의 기념품과 완주인증서 발급도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안심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벼운 등산 코스를 찾는 이들이 늘어났다. 인천둘레길(16코스)은 각 구별 각 1개 이상의 코스가 조성돼 있어 수도권에서 접근이 용이하다.

강화 마니산길·옹진 장봉도 섬길의 신비로운 자연과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 근대 역사문화를 느껴볼 수 있다. 1코스(계양산)와 15코스(마니산)을 제외하면 모두 해발 200m 내외의 완만한 숲길로 이루어져 있어 가벼운 산행으로 제격이다.

인천대공원에서 시작하는 둘레길 6코스(소래길)는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11월 걷기 좋은 길 5선’(2021.11.)에 선정된 바 있다. 인천둘레길 외에도 계양산부터 청량산까지 이어지는 인천의 S자 능선을 연결한 숲길로 정상을 정복하는 인천종주길(총 10코스)도 마련되어 있다.

스탬프북을 들고 완주를 인증한 시민에게는 소정의 기념품과 함께 완주인증서가 발급된다. 스탬프북은 인천시청 또는 가까운 군·구청에서 수령할 수 있다. 숲길 내비게이션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트랭글을 이용하면 어플리케이션 내에서도 완주 인증을 할 수 있다.(아래 QR코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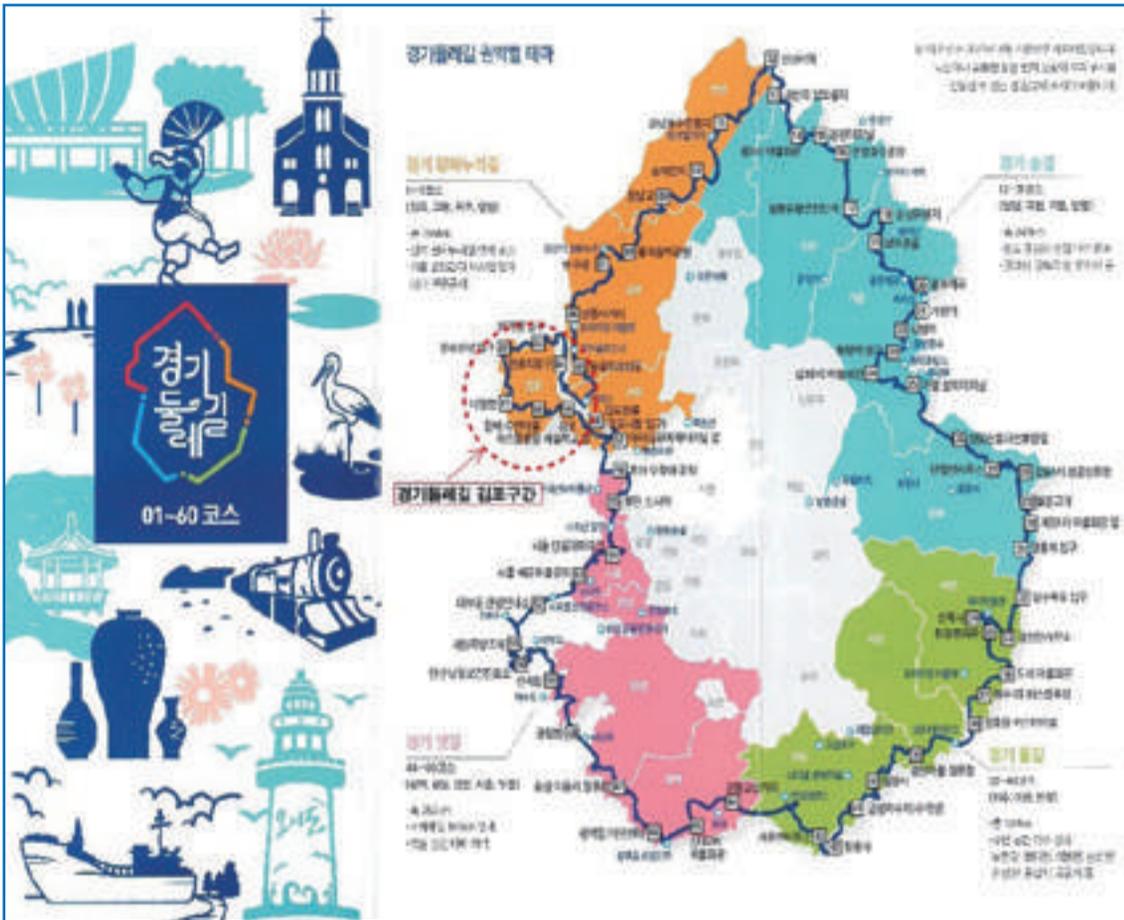
박세철 시 녹지정책과장은 “비교적 낮고 완만한 산으로 이루어진 인천둘레길을 걸으며 가벼운 운동으로 일상회복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최백하 기자



관련사이트: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천둘레길운영, 완주증발급)
<http://iagenda21.or.kr/dulle>



경기 둘레길의 시작과 끝, 김포시에서 개통기념 플로킹 캠페인 개최



김포시는 경기 둘레길의 개통을 기념하는 플로킹 캠페인이 11월 17일 경기둘레길의 1코스가 시작되는 대명항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광과에서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성대한 개통 기념행사 대신,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운동인 플로킹 캠페인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에서는 채신덕 도의원을 비롯한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용훈 관광과장이 참여하였고, 김포시에서는 이석범 부시장을 비롯한 조성춘 경제문화국장, 김정애 관광진흥과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재)김포시 걷기연맹 회원 등 20여 명이 서포터즈가 참석해 의미 있는 행사로 개최됐다.

경기 둘레길은 경기도 외곽을 하나로 아우르는 총 860km에 달하는 둘레길로 시작점인 1코스에서 4코스 일부와 종점으로 연결되는 57코스에서 60코스가 김포시 코스로 포함되어 있다.

이석범 부시장은 “오늘(17일)에 개통한 경기 둘레길이 코로나 19 이후 하나의 트렌드로 떠오른 도보여행을 즐기는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1**

- 최백하 기자

김포시 '1호 수소차' 달린다 “관용차 친환경 구매 의무화”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1호 수소차량을 구매하고 19일 오전 시승식을 가졌다. 김포시는 2019년 전기차와 수소차 등 보급률 경기도 내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로 손꼽힌다. 올해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예산은 총 305억1800만 원으로 이 중 수소차 구매에 34억2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김포시의 수소차 지원 보조금은 차량 1대당 3,250만 원이며 올해는 106대 보급이 목표다.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걸포동 천연가스(CNG) 충전소 내에 수소연료 충전기 1기를 설치한다. 수소차 충전 시간은 대당 10분 정도 소요되며 하루 최대 약 50대의 충전이 가능하다.

시운전을 마친 정하영 김포시장은 “수소차는 달리는 공기청정기로 불릴 만큼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크다”면서 “관용차량 친환경 구매 의무화 등 더욱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1**

- 최백하 기자

김포시, 민·관·경 “안전한 통학로 조성” 협약

초교 교통 카메라 설치 완료...노란신호등도 연말까지 완료
정하영 시장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은 우선적 예산 지원”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23일 마산동 솔터초등학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하영 김포시장과 김포경찰서,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민간기업이 참여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정하영 시장은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을 계기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민·관·경이 협력해 쾌적한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우선적 예산 지원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에 36억 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앞 주요도로에 무인 과속·신호 위반단속 카메라의 양방향 설치를 완료했다. 또한 노란신호등 설치도 마무리하는 등 올해를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의 원년으로 만들 예정이다. **1**

- 최백하 기자



송암 박두성 역사적 의미와 가치 재조명

강화군,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 송암 박두성 생가 복원

유천호 군수 "승고한 정신이어 사회적 약자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으로 불리는 송암 박두성의 생가를 복원했다.

군은 22일 교동면 상용리에 '송암 박두성 생가복원사업'으로 사업비 13억 8천만 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2,244㎡에 생가(86.4㎡)를 복원하고, 기념벽, 휴상, 녹지공간이 조화를 이룬 기념공원을 준공했다.

특히, 유천호 군수는 지난 2010년 인천광역시의회 부의장 재임 시 '송암 박두성 선생 문화사업선양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생가복원사업을 민선 7기 주요사업으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완료했다.

이날 준공 및 개관행사에는 유천호 군수, 신득상 군의회의장, 박상은 문화사업회 이사장 및 유가족,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등이 참석해 박두성 선생의 승고한 정신을 함께 기렸다.

박두성 선생은 일제치하에서 일본점자로만 교육을 해야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1923년 제자들과 비밀리에 '조선어점자연구위원회'를 조직하고, 한글점자 연구에 매진해 1926년 우리나라 최초의 6점식 한글점자인 '훈맹정음'을 발표했다.

박두성은 "모든 장애에서 이들을 회복시키는 길은 오직 글을 가르쳐 정서를 순화시키는 길밖에 없다"며 엄혹한 시기에 한글점자 보급에 힘써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으로 불리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송암 박두성의 생가 복원을 통해 선생님의 역사적 의미와 승고한 가치가 재조명될 것"이라며 "앞으로 박두성 선생님의 뜻을 이어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 최백하 기자



강화군, 전통공예 '강화 화문석'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육성

'제2회 인천리빙디자인페어' 화문석 홍보로 판로개척
화문석 문화적·예술적 가치 재조명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제2회 인천리빙디자인페어'에 참가해 강화 화문석 홍보관을 운영한다.

군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하는 '인천리빙디자인페어'에 참가해 강화 왕골로 제작한 화문석 공예품을 전시한다. 또한, 옛 선현들의 손길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화문석 짜기 체험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운영한다.

도록 화문석 짜기 체험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운영한다.

전시 왕골공예품으로는 귀금속 보관이나 장식용으로 그 효용가치가 높은 '꽃삼합', 봉황, 태극무늬 등을 수놓은 '화방석', '손가방' 등 각종 생활 인테리어 소품이 소개된다. 이번 전시회는 우아하고 정교한 수공예품인 화문석을 강화도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리빙디자인페어로 우리 전통공예인 화문석이 우리 생활에 친숙하게 다가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전통 공예인 화문석을 널리 알리고, 판로도 적극적으로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화군 송해면 양오리에 위치한 '화문석문화관'은 동아시아 상류문화의 상징이었던 강화 화문석의 문화적 위상과 예술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강화 왕골 공예기술의 보존, 전승, 연구의 중심점이 되는 전시관으로 1층은 체험학습장, 2층은 전시실로 꾸며져 있다. 특히, 2층 전시실에서는 역대 공예품 경진대회 입상작, 강화완초전통보존회 작품, 국가무형문화재 103호(완초장) 이상재 장인의 작품 등 200여 점을 관람할 수 있다. **이** - 최백하 기자



기고

의원 別曲

별 곡



신 득 상
강화군의회 의장

한파가 몰아치는 요즘 장롱 속에 켜켜이 쌓아 두었던 겨울옷을 찾느라 분주한 손놀림이 어느덧 연말을 향하고 있다. 들판에는 때늦은 가을장마에도 잘 자라준 벼와 밭작물들이 알찬 수확을 기대하며 농부의 가쁜 숨을 기다리는 듯하다.

매년 이맘때 쯤이면 차가워진 날씨에 편승하여 각종 얼토당토않은 정보가 도처에 넘쳐 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아무도 없을 때 심장발작이 오면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는가에 대한 대처 방법이다. 이 때 제시된 방법이 억지로라도 크게 기침을 하고 심호흡을 유도하여 병원에 갈 시간을 확보하

라는 것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는 그나마 대처 할 시간을 잡아먹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한다. 심장마비는 전조증상에 따라 미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119 등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서 빠르게 위기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의사들의 소견이다.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정보가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일까? 더구나 우리가 사는 시골 지역은 넘쳐나는 정보만큼이나 의료시설이 따라주지 않는데 말이다. 이것은 열악한 환경에 삶을 맡긴 농촌사람으로서는 매우 슬픈 현상이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군민의 선택을 받아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며 달려 온 제8대 강화군 의회가 7개월여를 남겨두고 있다.

그동안 우리 의원들은 지역구 주민들의 의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실타래처럼 엉킨 민원을 해결하느라 담당 공무원을 설득하고 때로는 밤늦은 시간 까지 주민들과 대화하며 방안을 찾았다.

323건에 달하는 조례안과 예산심의 및 결산안 그리고 각종 규칙제정안과 동의안 등을 심도 있는 질의와 치열한 토론을 거쳐 처리했다.

우리군 의회는 변변한 상임위원회 하나 없이 모든 안건을 6명의 의원이 각종 특별위원회를 번갈아 가며 구성해서 일을 해왔다. 그동안 상정된 안건 처리결과를 보면 원안가결 258건, 수정가결 8건, 부결 1건, 부동의 1건, 기타 55건 등이다. 이는 전국의 동일 수준 군 가운데서 매우 준수한 실적이며 처리양태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로는 이번 8대 의회가 집행부에 과도하게 끌려 다니는 것 아니냐 라는 애정 어린 질타를 비롯해 공무원들로부터는 의회가 너무 사소한 것 까지 시시콜콜 따진다는 불멘소리를 여러 경로로 들곤 한다. 하지만 이런 비판은 당연히 감내해야 할 선거직 공인으로서의 숙명이자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할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한다.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시대에 한낱 가십거리 정도의 얘기에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 요즘이다. 새로 시작되는 위드 코로나와 더불어 올 겨울도 이상한파가 예상되지만, 앞으로도 우리 8대 강화군의회는 남은 임기동안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군민의 곁에서 군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며 강화가 모든 분야에서 번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



Photo 경관조명 - 문화관광과

가을 戀書

연 서



고 수 진
강화향교 장의

행길가에 코스모스 그대 모습 해살하게
진고개 귀머거리 쟁기질에 호미 쥐면
서로가 말 못하고 선 夕陽(석양)의 두 그림자

바람막이 눈빛으로 마음을 서로 전하고
나라미 넉넉지 못해 살림살이 불편하겠지
그대가 내 곁에 서면 天生配匹(천생배필) 또 있을까

불구라도 진솔하면 사랑은 其利斷金(기리단금)
순정은 다정다감 은근한 모닥불 같아
우리의 가을 노래가 同心(동심)으로 쌓아 올린

들녘의 허수아비 두 팔을 벌려 달려와서
영식군 삼형제에 아씨자매 품어 내시거
북방의 쇠기러기 때 百年偕老(백년해로) 기약하나다

눈도 멀고 귀도 멀고 손가락 끝 그대 얼굴
주름살을 더듬더듬 훌쩍 넘긴 千年鶴(천년학)이
하얗게 눈 오는 밤을 한 이불 속 영영토록



耕田後鋤(경전후서)입니다. 지극히 아름다운 夫婦(부부)의 田園生活(전원생활)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혼한 우리의 예전 農家(농가)의 풍경입니다. 남편이 소 멩에 쟁기를 걸어 앞서 밭을 갈아 엎어나가면 아내가 뒤쫓아 호미로 김을 추려내고 잔돌을 골라낸다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夫唱婦隨(부창부수)’의 和音(화음)입니다. 夫婦(부부)는 우리 사회의 최소 공동체인 가족의 根幹(근간)입니다. 부부의 不協和音(불협화음)은 가족공동체의 自潰(자괴)를 뜻합니다. 이는 국가사회의 크나큰 위기이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의 人性(인성)이 가장 먼저 형성되는 공간은 바로 家庭(가정)입니다. 부모에게 보고 듣는 그리고 형제간에 어울리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家和萬事成’이라 했습니다. 가족이 和睦(화목)하면 家事(가사)의 전반적인 일들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는 뜻입니다.

‘和睦’이란 『千字文(천자문)』에 ‘上和下睦(상화하목)이란 구절이 있습니다. 夫婦(부부)를 기준으로 웃어른 부모에게 거스름 없이 효도하는 것을 ‘和(화)라 하고, 아래로 자식들을 慈愛(자애)로 돌보는 것을 ‘睦(목)이라고 합니다. 3대가 ‘團欒(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을 ‘和睦(화목)한 家族(가족)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團欒(단란)은 ‘등근 밥상’입니다.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시해서 손자 손녀들과 함께 등근 밥상에 마주 앉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시골벽책했습니다. 향시 부드럽고 기름진 음식은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놓아드렸습니다, 그게 禮節(예절)이라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오히려 ‘仁慈(인자) 모습으로 한참 성장하는 손주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털어 주었습니다. 밥상머리는 늘 ‘和氣靄靄(화기애애)한 ‘人性(인성)의 교육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족의 구성원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긍정의 힘을 가지고 인간관계의 신뢰와 양보하는 인정을 베풀 수 있으며, 형제간의 나눔에서 일에 대한 공정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四字小學(사자소학)』에 부부는 ‘相敬如賓(상경여빈)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崇高(숭고)한 표현입니다. 서로 ‘恭敬(공경)키를 마치 손님 대하듯 한다. 이는 곧 서로의 사랑과 신뢰감을 쌓아가는 ‘隆禮(용례)입니다. ‘夫婦(부부)의 ‘禮節(예절)을 다한다는 말일 겁니다. 아무리 ‘無寸(무촌)으로 친근할 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尊重(존중)하며, 각자의 도리를 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하게 ‘如寶(여보)라고 부르던 ‘當身(당신)이라 ‘和答(화답)합니다. 글자 그대로 ‘보석 같은 내 사람’, ‘마땅히 내 몸과 같은 그 사람’, 해서 부부는 ‘一心同體(일심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一心同體(일심동체)는 가정의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가는 원동력입니다.

明倫堂(명륜당) 담장을 의지해 코스모스 피었습니다. 마치 명륜당 선비들의 책 읽는 소리를 듣는 듯했습니다. 가을별에 해살한 미소가 전형적인 어진 아내이며, ‘慈愛(자애)로운 어머니 모습 같았습니다. ▣

- 최백하 기자

책과 차를 마실 수 있는 마을책방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및 거리두기 시행을 하며 관청리 동문안 마을책방 개관식을 12월 8일 하였다 관청1,3리 우리들의 이야기, 그림책

관청1리 최홍엽, 관청3리 윤용산 마을대표, 관청리 도시재생 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장동환 및 모든 위원분들은 주민들의 협조와 꾸준한 관심으로 지난 5월부터 초상화 스케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인터뷰를 한 내용을 책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살아온 삶을 너무 솔직하게 표현하여 다른 가족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은 삭제할 정도로 순수하고 정겨운 관청1,3리 주민들의 애환이 담긴 이야기 책이다.



관청 1,3리 우리들이야기
사람들 사이에 꽃이 필 때 무슨 꽃인들 어떠리
그 꽃이 뿜어내는 빛깔과 향내에 취해
절로 웃음짓거나 저절로 노래하게 된다면...
우리들 이야기! 📖



관청리 동문안 마을책방 개관
2021년 12월 8일
강화군 강화읍 관청1리 관청리 도시재생 개발추진위원회

책으로 하나되는 관청리 동문안 마을 상영회
2021년 12월 8일 ~ 31일 공휴일 제외
강화군 강화읍 관청1리 관청리 도시재생 개발추진위원회

※ 코로나19 방역수칙 상황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수 있음

‘함께해요! 나, 너, 우리돌봄!’ 〈인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민지원단〉공식 출범 통합돌봄의 내실 있는 추진과 시민 참여로 다함께 돌봄 실현 기대



돌봄 사각지대 발굴, 서비스 제공 및 저변 확대, 인적·물적 자원 발굴연계

통합돌봄 관련 전문가와 시민 등으로 구성된 가칭 “인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민지원단”이 공식 출범했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시사회서비스원과 19일 인천시청 1층 중앙홀에서 ‘인복드림 시민축제’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민지원단’ 출범식을 가졌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노인, 장애인, 정신장애인들이 거주하던 곳(주택, 그룹 홈)에서 돌봄서비스(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 지원)를 받으며 지역사회와 어울려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지원단 50명과 유튜브,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 Zoom으로 400여 명이 참여했다. 박남춘 인천시장,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시의회 문화복지위원, 유해숙 사회서비스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9월부터 모집을 시작한 시민지원단은 현재까지 157명이 신청했으며 돌봄 사각지대 발굴, 돌봄서비스 제공 및 제공자 모집·양성을 통해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민선 7기 인천시는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열어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출발했다며, 오늘 출범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민지원단도 함께 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

- 최백하 기자

강화군, 세금 고민 〈마을세무사〉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 세금고민,
마을세무사가 무료로 해결해 드립니다”

세금고민 마을세무사와 무료로 상담하세요

마을세무사란?
- 일제사건지, 동맹군 주민 등 세무사 역할이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대동기'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범위
-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상담
- 재산과 관련된 미안, 지방세 관련 물품 장구까지 최대한의 미안한 차에 관한 사항을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대행도 포함된다.

이용방법
- 1차 전화·팩스 상담, 필요시 2차 대면상담

강화군 마을세무사 현황

담당 지역	세무사명	연락처
김학읍, 선영면, 불암면, 남산면, 화도면, 달도면	이거름	032)930-3940
김학읍, 내곡면, 화정면, 양사면, 송계면, 교동면, 서산면, 서도면	이재봉	032)933-3205

문의 : 강화군청 재무과 ☎032)930-3296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마을 세무사’를 운영하며 경제적 이유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하고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국세·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지방세 불복청구(청구금액 3백만 원 미만) 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강화군에는 2명의 세무사(이기홍 세무사, 이재봉 세무사)가 무료 세무 상담 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에만 무

료상담 572건(국세 410건, 지방세 62건)을 진행하며 주민들의 세금해결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 팩스 및 이메일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고,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각종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으며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 보유자 등은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기타 마을세무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화군 홈페이지, 강화군 재무과(☎930-3297), 미추홀 콜센터 120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

- 최백하 기자

달라지는 농촌! 행복한 강화!

고령화와 이상기후 심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농가에 드론과 로봇이 활력을 넣습니다!

첨단농업은 더 좋은 농산물을 더 안정적으로, 쉽게 재배하여 여유롭고 풍요로운 강화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살고싶은 도시 함께만드는인선

“ 인천시민의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을 지원합니다.”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 안내

지급대상 2021. 10. 31.(일) 24:00 기준 강화군에 주민등록된 내국인 및 외국인
- 외국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강화군거소신고자

지급내용 1인당 10만원

지급방식 인천e음카드 지급

신청방법 인천e음 앱

신청기간 온라인 2021. 12. 20.(월) ~ 2022. 1. 31.(월) 09시-23시

신청일	월(12.20)	화(12.21)	수(12.22)	목(12.23)	금(12.24)
출생연도 끝자리	1,6	2,7	3,8	4,9	5,0

* 12.20. ~ 12.24.(5일간)/요일제 신청

현장신청 2021. 12. 27.(월) ~ 2022. 1. 28.(금) 09시-18시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신청일	월(12.27)	화(12.28)	수(12.29)	목(12.30)	금(12.31)
출생연도 끝자리	1,6	2,7	3,8	4,9	5,0

* 12.27. ~ 12.31.(5일간)/요일제 신청

신청방법 본인 직접신청 원칙 [※ 단, 기초연금수급자는 별도 신청절차없이 개별 현금지급합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 일괄 신청, 대리신청은 위임장 및 증명서류 필요)
온라인 신청: 인천E음 앱 및 인천e음 · 인천광역시 · 강화군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현장 신청: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 읍 · 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홈페이지 및 인천E음 앱에서 확인바랍니다.

사용기간 인천E음카드 지원금 지급 후 2022. 3. 31.(목)까지
※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하여 남은 잔액은 자동소멸 됩니다.

사용처 인천시내 인천E음카드 가맹점

콜센터 미추홀 콜센터 ☎120 / 강화군 콜센터 032-930-3910-3914

all ways INCHEON

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 정신과전문의 상담**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무료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진행

*** 정신건강검진**
무료 정신건강 검사 및 조기개입 : 심리상담 평가, 결과해석

*** 가족지원 서비스**
가족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가족모임 진행

*** 마음건강 프로그램**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지행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제공

*** 상담 및 치료지원 서비스**
심층 상담 및 병원 연계, 치료비 지원 서비스 등

*** 이용안내**
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만성정신장애인의 적응력을 높여 지역사회에 복귀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재활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등의 예방사업을 진행하여 강화군 전체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방법

- 일반상담 : 전화 및 내소상담 (평일 09:00~18:00 내소 상담 시 전화예약 필수)
- 전문의 상담 : 금요일(예약 필수)

나눠 주세요 당신의 '장' 을 - 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 를

24시간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 1393

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932-4093

홈페이지 온라인 및 카카오톡 비대면상담

강화군, '삼산대교' 등에 <생명사랑> 표지판 설치
생명사랑 표지판은 '24시간 위기 상담 전화(☎1577-0199, 1393)와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락처(☎032-932-4093)를 안내해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적응훈련 집단프로그램 실시

코로나19로 고립된 회원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 선사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15일 등록회원 13명을 대상으로 국화리 체험학습장에서 사회적응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어려워 심리적 위축과 사회적 고립감이 있는 회원 대상으로 ▲문패 만들기 ▲향기 나는 수수 복주머니 만들기 ▲수수 차 티백 만들기 등을 구성했으며, 외부 체험시설을 이용해 정서 환기와 스트레스 해소를 돕고, 참여자들이 직접 결과물을 만들어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군 관계자는 “자존감을 키우고 대인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1

- 최벽하 기자



WINNER FIT
프리미엄 퍼스널 트레이닝센터

강화읍 남문로14
(구 하이마트 건물3층)

☎ dngus5511 📍 winner_fit_han

예약문의 **032 934 1003**
010 9153 6524 / 010 6649 6068



강화병원 장례식장

유가족과 슬픔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장례의식을 엄숙하게 치를 수 있도록
최고의 시설과 각종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맑고 깨끗한 환경과 편안하고 청결한 분위기로
유가족 입장에서 모든 장례절차를 상담하고
내 가족의 일과 같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일동은 고인과 유족을
성심 성의를 다하여
장례서비스를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화병원 장례식장

장례상담 · 묘지관리 · 석제품일절



복음교회 김 군 실 장로

Mobile **010.2668.7766**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12번길 11

Tel **032.933.0405**
032.933.0406

묘지관리 전문

전국 묘지공사 전문업체
1급장례지도사, 후불제상조



Mobile **010.2668.7766**

Tel **032.933.0012 / 032.934.6780**

E-mail **kgsgs7766@naver.com**



NAVER

강화묘지마장@

검색